**마1237(1) Note**

**◆용어 : 칭의, 거듭남, 성화 그리고 믿음 / 변승우**

**◇칭의**

칭의는 다른 말로 의인(義認)이라고도 하는데,

이 칭의는 ‘사면,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칭의는 실제적인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죄에 대한 사면이요, 용서함이며, 법정 선언적인 것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다,

무죄하다고 선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타락 이전의 상태로 정상화되는 것이다.

이는 관계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의인에 대해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성경적인 명백한 견해는 ‘사면’이요, ‘죄의 용서’이다.

그것은 아들의 피로 인한 화해의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롬3;25)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칭의라는 말은 ‘용서’와 같은 말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다. 이 구원이 우리를 위해 취하는 값은(일반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이다. 곧 이 값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다 쏟는 데까지(사52;12) 행하셨고,

고통을 당하신 모든 것이다.

웨슬리는 칭의를 바로 죄의 용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전가되고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인간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믿음이 의롭다 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칭의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동시에 반드시 회개, 곧 참회의 과정

이 수반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의는 화해를 낳으며, 또 화해는 하나님의 가족에로의 입양을 낳아 중생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중생 그리고 양자됨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단지 관계적 변화를 의미하며,

신생은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외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후자는 우리 영혼의 깊은 속을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전자는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

후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는 죄책을 제거하는 일이요,

후자는 그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한 객관적 은총, 법적 은총(legal grace)이라

면, 거듭남은 주관적 체험, 내적 체험인 것이다.

인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면서 흑암 주관권에서 하늘 주관권으로 옮겨 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한다.

의인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의인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인간의 참된 믿음'이 있다.

존 스토트;

칭의는 법정에서 빌려온 법적 용어, 곧 전문용어이다.

이 말은 그 반대말인 ‘정죄’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구약의 재판관은 죄 없는 자를 죄 없다 하고, 악한 자를 죄 있다 하도록 지시를 받

았었다.

**◇거듭남**

반면에 거듭남은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선언된 사면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선언된 것과 실제의 상태가 부합되어야 하는데,

종전의 상태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한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칭의는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것이요

성화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는 것이다,

Ω빌0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청종해 왔던 것과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는 훨씬 더 무서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쏘테리아:구원,안전,건강)을 성취하라(완전히 마치라),

**◇예화**

<선다씽의 ‘그발 앞에 엎디어’에서 예수님께서 선다씽에게 이르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원문이 아니고, 제 기억을 따라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몇자 올립니다>

옛적에 어느 왕국의 한 고을에 정신병에 걸린 청년이 있었다,

그가 정신질환 중에 살인을 저질러, 고을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사형선고의 부당함을 왕에게 탄원하였다,

왕이 전후 사정을 살펴본 후에, 그가 살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질환이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알고서, 그 청년을 사면하였다(칭의),

부모가 기쁨에 넘쳐, 고을에 와서, 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감옥에 가보니,

아들은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죽어있었다(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한 사망).

이와 같이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 마치 사람이 병중에 있으면서 동시에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모순된 것이다.

**◇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임의적으로 면제시키고 율법의 대용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간주될 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매개체 또는 도구로 하여 의롭다 함을 얻을 뿐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가 있는가? 다른 것으로는 안되는가?**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유는,

믿음 안에 존재하는 그 탁월함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

이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맺고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몸의 지체들이 머리에, 아내가 남편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케 함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즉 믿음이 성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수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거룩해지면 그들의 과거의 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믿음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은

그 믿음과 거룩함 자체를 보시고 용납된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마치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취급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는 율법준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게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 자체가 의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여 거룩함을 낳았기 때문입니다(찰스피니)

롬1004. 이는 그리스도는 믿는 낱낱의 자에게 '법적 깨끗함'에 대해서는, 법(法)의 종점(텔로스: 한계로서의 도달점,행위나 상태의 결국,종착,결과,목적,완성)임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입니다(존스토트)

성화와 칭의는 물론 분명히 구별되는 상이한 것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으로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거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거룩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의 죄를 용서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늘나라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

마치 사람이 병중에 있으면서 동시에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모순된

것이다.”